

〈제 759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금융감독원 주관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2년 연속 우수사례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2023년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광주은행의 ‘지역 내 플라워샵과 연계한 복합점포’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격려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9년 이후 매년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해오고 있으며,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상생 경영을 실천하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해 지역 내 서민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채무조정 상담, 경영컨설팅 제도를 확대해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광주광역시에 지역 치매 어르신 대상 배회감지기 지원 후원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9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문영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대삼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 김동기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지역 치매 어르신 대상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된 후원금은 광주·전남 지역에 배회감지기 각 300대씩, 총 600대가 지원될 예정이며, 광주·전남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해 광주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보급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침으로써 지역 곳곳에 나눔 문화를 전파하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

◆크리스마스 카드 이벤트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크리스마스 카드 증정 이벤트를 오는 10일까지 본관 1층 광장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 카드 증정과 즉석사진 촬영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되며 당일 구매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즉석 사진 이벤트는 광주신세계 본관 1층 광장에 설치된 퍼영 작가의 아트월 작품에서 촬영 후 바로 사진을 받을 수 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경제+일자리 통합기관 비전 및 CI공유회’ 개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현성)은 지난 4일 오후 재단 본원 1층 로비에서 ‘경제+일자리 통합기관 비전 및 CI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내외 귀빈과 재단 임직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가운데 경제일자리재단은 ‘국가대표 경제일자리 솔루션 플랫폼’을 비전으로 발표하고 음양을 상징하는 태극과

광주시민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초록,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중의적 의미의 리본을 섞어 광주시민의 선물이 되겠다는 의미의 새 CI 디자인을 공개하였다.

김현성 대표이사는 “맡겨놔으면 제대로 해보라는 시장님의 격려에 용기가 생긴다”며, “광주는 광주만의 색을 가지고 하겠다. 시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과 무등산 정상에서 만났던 것과 같이 디지털 정상에서 다시 만나뵙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광주테크노파크

◆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실시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는 지난 1일 북구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김장나눔 행사는 참여자들이 직접 절임 배추에 정성껏 양념을 하고 포장하는 등 저소득 장애세대, 독거노인, 고독사 고위험군 등 150세대에 5Kg씩 골고루 전달됐다.

광주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은 "울겨울 혹한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참여자들의 나눔과 사랑으로 건강과 행복을 위한 김장김치를 전달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연말연시 따뜻한 온기를 지역 곳곳에 전하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 2023년도 우수활동 사례 공유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단장 양정열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30일 광주 서구 데일리컨벤션 로템홀에서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도 우수활동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광주광역시청을 비롯한 노사 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지역 대표 사업장 등 추진단에

포함된 19개 기관이 참여하여 그간 추진계획 및 공공, 제조, 건설 분야별 안전문화실천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진단 단장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광주지역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단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굴하여 안전문화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며 "지역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남대학교 병원

◆의료질 향상 경진대회 개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지난 23일 오후 4시 6동 8층 백년홀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QI)을 위한 QI경진대회를 개최했다.

30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의료질관리실(실장 정인석 교수) 주최로 열린 QI경진대회는 환자 안전 관리와 감염예방, 고객만족증진 활동 등 주제로 총 18개 팀이 참여해 10개월간 활동했으며, 중간

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해 12팀을 선정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현장에서 몸소 겪은 부분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준 만큼 이를 활용해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전KPS

◆나주 다도면에 성금·후원물품 기탁



한전KPS 김홍연 사장이 17일 (사)한국서비스경영 학회가 주관하는 ‘Service Excellence Award’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김 사장은 수준 높은 품질경쟁력과 체계적 고객 만족활동을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고객만족도를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서비스경영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발전정비 시장 환경변화 속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가치 창출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I. 회원사 동정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2023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28일 한전KPS에 따르면 한전KPS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자체감사활동심사 평가 'A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23년에는 공기업군 36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김홍연 사장은 "감사실은 내부통제의 최종 방어선 조직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 설계·운영의 효과성 점검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기관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종합에너지기업 해양에너지(대표 정희)는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의 빛고을 장학생에게 장학금 기탁기관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5월 빛고을장학금 기탁식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5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정희 대표는 “장학금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30회 금요조찬포럼>

웃으며 사는 행복한 세상

(엄영수 개그맨)

1630회 금요조찬포럼은 엄영수 개그맨을 초청하여 「웃으며 사는 행복한 세상」를 주제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모든 것에 웃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TV를 보면 웃음 천국입니다. 나오는 사람마다 웃고 물건을 판매하려고 만드는 광고, 연기자, 아나운서부터 다 웃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웃음이 헤플 정도로 많습니다. 웃음이 없으면 대화가 안되고, 내용 전달이 안됩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회사에 웃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개그맨들이 콘테스트에 입상하고 코미디 협회에 등록하러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개그프로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개그를 해야 하는 후배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후배 개그맨들에게 물어 봅니다 지금 마이크주면 관객들을 웃길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어렵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가장 웃기는 사람이었고, 회사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한 가지 조언은 방송에 나가거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가장 크게 웃으라고 조언합니다. 방송 카메라가 이야기하는 사람을 찍고 있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가장 크게 웃고 있는 사람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크게 웃고 있는 사람이 카메라를 다 가져갑니다.

담배회사 중 필립모리스라고 있습니다. 창립자인 필립모리스는 좋은 담배를 만들기 위해 담배를 엄청 폈습니다. 이분 100세 이상 살았습니다. 또 가장 향기가 좋고 가장 맛있는 꼬냑을 만든 사람은 114살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런닝 머신을 만들어서 수십조 재벌이 된 사람은 54살에 죽었습니다.

유명인사일수록 어떤 불행한 일이 오면 방송에 나와서 막 읊니다. 저는 결혼을 3번 했습니다. 처음 이혼했을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을 위해 다시 재혼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세 번의 결혼에 성공했고, 두 번의 이혼에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다섯 번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안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안받고 살기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필요합니다.



1. 경제 동향

◆ 경총,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 결과 발표 (11.27)

- 경총은 매출 상위 주요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휴가 제도 현황에 관해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 실시

※ 본 조사는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공기업 제외, '22년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응답 기업 수는 31개사

〈 주요 내용 〉

- **(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 부여)**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을 월등히 넘는 휴가제도 운영
 - '하계휴가(연차外) 부여' 51.6%(비금융 기업은 76.5%), '연차휴가 상한(年25 일) 초과' 32.3%, '월차휴가 부여' 9.7%, '생리휴가(유급) 부여' 22.6%
-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여부)**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 90.3%, '보상 없음' 9.7%
 - 금전 보상 있음 기업(90.3%)은 '연차휴가 촉진제를 도입하였으나, 금전 보상 있음' 54.8%, '촉진제 미도입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있음' 35.5%로 구성
- **(연차휴가 사용률)** 연차휴가 보상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 64.7% vs 보상하지 않는 기업 81.7%
 - 연차휴가 금전 보상 여부에 따라 휴가 사용률 차이 커(17.0%p), 전체 평균 연차휴가 사용률은 66.5%
- **(고정OT 제도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 '고정OT 제도가 근로자 생산성에 도움된다' 42.9%
 - '생산성과 연관 없다' 는 응답 50.0%, '생산성에 역효과가 있다' 는 응답은 없었음.

Ⅲ. 노동경제동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11.29)

○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 1.4%를 기록한 후 2024년 2.3%, 2025년 2.1%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 지난 9월 OECD 전망치 대비 2023년 0.1%p 하향 조정, 2024년은 0.2%p 상향 조정

- 수출이 반도체 수요 회복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2024년 하반기부터 부채부담 · 인플레이 등 소비 · 투자 제약요인이 완화

※ (상방요인) 예상보다 건조한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에 상방요인으로 작용 가능. (하방요인) 글로벌 금융불안 심화시 가계·기업 부채 부담 증가,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망 위협 가능성 등 존재

-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이후 3.5%를 유지 중이며, 2024년 하반기까지 現 수준을 유지하고 2025년에 2.5%까지 점차 인하될 전망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3.6%를 기록한 후 2024년 2.7%, 2025년에는 2.0%로 낮아질 전망

※ 지난 9월 OECD 전망치 대비 2023년 0.2%p 상향 조정, 2024년은 0.1%p 상향 조정

○ OECD는 ①재정건전성 제고, ②취약계층 타게팅 지원, ③원활한 노동력 재배분 유도, 일-가정 양립 제고, ⑤온실가스 감축 등을 정책권고 사항으로 언급

① (재정건전성 제고)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재정지출 압력이 2040년까지 GDP의 5%만큼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건전성 제고를 권고

② (취약계층 타게팅 지원) 최근 연장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더 직접적으로 타게팅하는 지원방식을 제안

③ (원활한 노동력 재배분 유도) 상품시장 규제 혁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④ (일-가정 양립 제고) 육아휴직 지원 확대, 유연근무 확산 등 일-가정 양립과 여성 고용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노력 강화 필요

⑤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도와 기후 목표의 조화, 친환경 전력 공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등을 제안

Ⅲ. 노동경제동향

◆ 통계청,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11.30)

- **(생산)** 2023년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Delta 3.5\%$)과 서비스업($\Delta 0.9\%$)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1.6% 감소*(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전산업 생산은 2020년 4월($\Delta 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기록

※ 전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전월대비) : 0.0('23.6)→ $\Delta 0.8$ (7)→ 1.9(8)→ 1.0(9)→ $\Delta 1.6$ (10)

-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10.4%)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11.4%)*, 기계장비($\Delta 8.3\%$)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3.5% 감소(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반도체 생산 증감률 추이(% , 전월대비) : 3.6('23.6)→ $\Delta 2.5$ (7)→ 13.5(8)→ 12.9(9)→ $\Delta 11.4$ (10)

-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1.3%) 등에서 늘었으나, 도소매($\Delta 3.3\%$), 금융·보험($\Delta 1.2\%$)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9% 감소(전년동월대비 0.8% 증가)

- **(제조업평균가동률)** 2023년 10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0.3%로 전월대비 2.7%p 하락(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제조업평균가동률 추이(%) : 71.7('23.6)→ 69.9(7)→ 73.1(8)→ 73.0(9)→ 70.3(10)

- **(제조업 재고율*)** 2023년 10월 제조업 재고율은 122.3%로 전월대비 8.4%p 상승(전년동월대비 11.1%p 상승)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제조업 재고율 추이(%) : 112.3('23.6)→ 124.0(7)→ 124.2(8)→ 113.9(9)→ 122.3(10)

- **(소매판매)** 2023년 10월중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3%), 내구재(1.0%) 판매가 늘었으나, 비내구재($\Delta 3.1\%$)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전년동월대비 4.4%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전월대비, %) : 0.9('23.6)→ $\Delta 3.2$ (7)→ $\Delta 0.3$ (8)→ 0.1(9)→ $\Delta 0.8$ (10)

- **(설비투자)** 2023년 10월중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Delta 4.1\%$)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Delta 1.2\%$)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3.3% 감소(전년동월대비 9.7% 감소)

Ⅲ. 노동경제동향

※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23년 5월($\Delta 4.9\%$) 이후 6개월 연속 하락
: $\Delta 4.9(23.5) \rightarrow \Delta 2.5(6) \rightarrow \Delta 11.2(7) \rightarrow \Delta 14.6(8) \rightarrow \Delta 5.6(9) \rightarrow \Delta 9.7(10)$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1(전월대비 0.1p 하락),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전월대비 0.3p 상승) 기록

◆ 고용노동부, 「2023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1.29)

〈 고용 부문('23.10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1,996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 3천명(1.5%) 늘어나며 2021년 3월부터 32개월 연속 증가
- **(입·이직)** 입직자는 9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천명(1.6%) 증가했고, 이직자는 86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6천명(3.1%) 증가

〈 근로실태 부문('23.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31만 6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1천원(5.7%) 증가
※ '23.9월 임금총액 증가는 전년 8, 9월 분산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금년 대부분 9월 지급되었고, 일부산업의 임금 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했기 때문임.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8.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4시간($\Delta 4.1\%$) 감소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20일→19일)

[1~9월 누계 근로실태]

- **(명목 임금)** 1~9월 누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96만 1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만 6천원(2.5%) 증가
※ 사업장 규모별 명목 임금상승률(1~9월 누계, %) : [300인 미만] 2.2, [300인 이상] 2.3
- **(총 근로시간)** 1~9월 누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6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1.0시간($\Delta 0.6\%$) 감소

Ⅲ. 노동경제동향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1~9월 누계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대비 1일 증가, 근로시간감소는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한 영향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발표 (11.3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한국은행은 2022년 1월(1.25%), 4월(1.50%), 5월(1.75%), 7월(2.25%), 8월(2.50%), 10월(3.00%), 11월 (3.25%) 일곱 차례, 2023년 1월(3.50%) 한 차례 인상하였으나,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 11월까지 7개월 연속 동결 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경로는 당초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한국은행, 「2023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 (11.29)

○ 2023년 11월 업황BSI는 70*으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며, 2023년 12월 업황전망BSI는 69로 전월과 동일

* 업황BSI 추이 : 74('23.7)→ 71(8)→ 73(9)→ 70(10)→ 70(11)

- **(제조업)** 11월 업황BSI는 70*으로 전월에 비해 1p 상승했으나, 12월 업황전망BSI는 68로 전월에 비해 1p 하락

* 제조업 업황BSI 추이 : 72('23.7)→ 67(8)→ 68(9)→ 69(10)→ 70(11)

- **(비제조업)** 11월 업황BSI는 69*로 전월에 비해 2p 하락했으나, 12월 업황전망BSI는 71로 전월에 비해 2p 상승

* 비제조업 업황BSI 추이 : 76('23.7)→ 75(8)→ 77(9)→ 71(10)→ 69(11)

◆ 한국은행, 「2023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11.28)

Ⅲ. 노동경제동향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월중 97.2로 전월(98.1)대비 0.9p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CCSI) :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 (2003년 1월~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 103.2('23.7)→ 103.1(8)→ 99.7(9)→ 98.1(10)→ 97.2(11)

-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62)는 전월대비 2p 하락, 향후경기전망CSI(72)는 전월대비 2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149)는 전월대비 2p 하락, 임금수준전망CSI(115)는 전월대비 1p 하락

○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1월 3.4%로 전월과 동일

※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3.3('23.7)→ 3.3(8)→ 3.3(9)→ 3.4(10)→ 3.4(11)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 (64.6%), 농축수산물(39.4%), 석유류제품(37.9%) 順

○ (물가인식)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인식' 은 11월 4.1%로 전월과 동일

※ 물가인식 추이(%) : 4.3('23.7)→ 4.2(8)→ 4.1(9)→ 4.1(10)→ 4.1(11)

2. 노사 동향

◆ 금주 중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한이 12. 2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11. 28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무회의」 안건으로 미상정
 -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논의 유예는 엑스포 개최지 결과 발표 등 현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 정부는 12. 1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
 -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 붕괴, ▲불법파업 조장·확산, ▲산업현장 무법천지화를 야기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 자명한 만큼 거부권을 통해 노사관계 파탄과 경제적 파국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
- 한편, 대통령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며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
 -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 ※ 사업주가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시 제한(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 노사정 사회적 대화 채널 복원

- 한국노총이 11. 13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경사노위는 11. 24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경사노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 간담회 참석자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성희 고용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Ⅲ. 노동경제동향

- 노사정은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대표자급 회의 정례화,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 개최에 의견합치
- 경사노위 본회의는 12월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대표자급 회의에서는 의제 선정, 회의체 구성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
- 한편, 정부가 11. 28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
 - ※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12. 11 시행 예정
-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① 경사노위 산하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근무시간면제 사용 절차 등이 포함
- 다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이 나누어져 있어 근로자위원 구성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
 - ※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 현황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11만3천여명),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7만5천여명),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13만6천여명)